

## 시대가 낳은 역사적 산물인 한국포장학회와 포장학과 설립 배경

신동소

전 한국포장학회 회장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1. 포장학회 설립배경과 전공학문

한국포장학회와 포장학과 창립에 이르는 과정을 밝히는데 나의 전공학문 관련분야의 지문 및 봉사와 관련이 있으며, 이런 배경에서 생각해 보면 마치 한 분야에서 새로운 분야로 분열(分業)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교수란 일생동안 한 분야에서 학문과 연구를 하면서 사회봉사를 하는 것이 사명이다. 나는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목재이용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다음 1960년 국립경상대학교 농과대학에 첫발을 디디었다. 그 후 불혹의 나이인 40대에 부교수의 신분으로 일본 큐슈대학에 유학을 떠나게 되었다. 당시 한일국교정상화가 되지 못한 여건에서 유학을 결심한 것은 펄프·제지학 강의의 개설이 우리나라에도 필수적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예감했기 때문이었다.

당시에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에는 이 분야에 대한 강의가 없었으므로 동 대학 임학과 강의는 목재이용학, 목재화학, 목재해부학, 목재화학, 목재건조학, 목재방부학 등의 교과목 밖에 없었다. 즉, 미국이나 일본에는 펄프학 및 제지학이 임산학과 커리큘럼으로 개설되어 있었지만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1970년 이전까지는 여건이 그렇지 못한 실정이었다.

우리나라의 펄프·제지산업은 기간산업으로 대학에서 전문 과목을 개설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학문을 도입, 교육하겠다는 뜻을 펴고자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은사이신 현 신규 교수께 저의 포부를 말씀드렸던바 쾌히 승낙하셔서 일본 큐슈대학에서 꿈을 펼치게 되었다. 결국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었다.

나는 일본 큐슈대학 대학원 농학연구과 박사과정에 1966년 4월 입학하여 1969년 3월까지 유학을 하였다. 본인의 전공은 임산학과 목재화학공학 강좌에 속하였으며, 펄프학, 제지학에 대해 千手 諒一 지도교수를 사사하였다.

청운의 꿈을 이루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역경에

서 삶의 철학을 갖고 어려웠던 고비를 견뎌냈다. 현직교수로서 제한된 기간 내에 역경을 딛고 3년 만에 귀국하여 복직하였다. 고진감래란 말이 있듯이 1973년 경상대학에서 서울대학교로부터 할애 요청으로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에 부임하게 되었다. 그것은 기대했던 대로 1970년 3월에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로부터 임산가공학과로 분리되어 바라던 펄프학, 제지학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설되었다. 즉 1973년 처음으로 전공인 펄프학, 제지학 강의를 맡게 됨으로써 ‘꿈은 이뤄진다’는 말을 실감하였다. 유학을 떠날 때 나의 목표가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에 이때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 2. 포장학회 설립과 업계자문 및 사회봉사

학술활동의 일환으로 시행한 업계 자문이 포장학회 설립의 밑바탕이 되었다. 무엇보다 정부와 관련기관의 자문이 학회설립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1982년 당시 상공부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을 때 동해펄프회사(崔鍾明 사장)가 경영 악화로 민영화가 대두되어 林寅澤 정부대표, 제지연합회 金柱河 전무이사, 제지업계대표 智東範 사장이 참석하여 이해(利害)가 상반된 가운데 나는 동해펄프주식회사는 국내 유일의 화학펄프 회사이며 국내 제지원료의 확보 차원에서 살려야만 한다는 管見을 피력하여, 조업정상화에 기여했던 결과 동해펄프주식회사가 회생되어 오늘날 무림 P&P(주)로 존속하게 되었다.

또한 1995년 2월 목포시 大佛공단에 위치한 漢拏제지주식회사(鄭仁永 회장) 준공식을 환경단체가 저지하자 曹圭河 전남지사의 주재 하에 쟁점 사항 회의 시 오늘날 제지공업은 물을 많이 쓰는 용수형 사업이 아니라고 하는 반박과 설득으로 분규의 수습에 일조한 비화가 있다.

회고하건대 그 후 1982년 상공부 정책자문을 시작으로 1996년 정년에 이르기까지 공업진흥청 중이·펄프전문위원, 공업표준심의회 ISO부문 TC6위원, 산업디자인포장센터 자문위원, 특허청 심사자문위원, 상공자원부 공업기반기술개발 기획평가위원, KS 펄프·종이규격 심의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근대 한국 포장의 총본산인 한국디자인포장센터

†Corresponding Author : 신동소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LG자이 Apt. 106동 1303호  
E-mail : <dsshin@snu.ac.kr>

(KIDP 장예준 초대이사장)는 1970년 5월 19일에 설립되었는데 동 기관(1990년 柳豪玫원장)의 자문위원으로 포장인과 인맥을 쌓고 교류를 갖게 되었다. 당시 KIDP 연구원과 포장업계의 전문가는 화학, 식품공학, 화학공학, 기계공학 및 디자인 전공자였으며 그들의 업적과 활약이 컸다. 본인의 전공과 관련하여 지류는 포장의 50% 이상 차지하였으므로 지류의 특성, 소재의 가공, 용도개발, 규격심외와 평가에 참여하며, 포장전문인과 교류를 하였지만 포장학회가 잉태할 여건은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포장학회설립에 구심점을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 3. 포장학회 창립의 태동기에 부쳐

국내 경제발전은 포장산업의 성장과 맥을 같이하며, 수출상품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요소임을 누구나 부인하지 못할 것임으로 포장산업 발전의 기반구축에는 포장의 기초연구의 강화에서부터 학계간 및 업계간 상호협력이 관건임을 우리 모두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포장전문인, 관련학과, 연구기관, 관련업계 등 정보교류와 포장의 기초과학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이를 위해 포장학회의 발족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런 상황에 나와 월간 포장산업 金 淸 대표는 일본의 업계와 포장학회의 역할, 조직, 운영, 업계와의 유대 등에 관한 일련의 사정을 파악하고 상호협조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1993년 2월 23일 日本包裝學會 사무국을 방문하여 당시 부회장인 門屋 卓, 사무국장 荒井 進, 大日本印刷株式會社の 古屋良介 등 학회 임원들을 만나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토론하였다. 또한 2월 24일에 日本包裝技術協會(JPI)도 방문하여 佐佐木 春夫 전무이사 등의 임원들과 면담하였다.

일본의 포장학회, 포장기술협회 그리고 포장관련 업계, 각 단체들과의 긴밀히 협조하는 모습들을 보고 감명을 받았으며 낙후되어 있는 우리나라 포장업계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産學研의 공동노력과 학술적 연구를 위하여 한국 포장학회 발족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꼈다.

귀국 후 1993년 3월 6일 KIDP 맞은편 식당 “五家”에서 본인과 金 淸 대표, 포장개발원의 李大成, 李明堦, 포장신문의 金在敦씨 등이 모여 국내 포장산업의 외형 팽창에 따른 이론적 토대구축이 필요하며 범포장인의 연구학술단체로 가칭 한국포장학회의 설립 공감대가 우리 업계에 확산되고 있으므로 이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리고 동년 3월 8일 자 한국포장신문, 제 49호에 학계, 업계 관계자 중심으로 한국포장학회 설립 가시화와 ‘日本包裝學會를 모델로 기본 방향에 관한 자료를 이미 수집’했다는 등의 기사가 보도되어 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다.

日本包裝學會 방문을 계기로 1993년 6월 4일 KOREA TAPPI 주최 제 20회 국제세미나 “포장과학 및 기술”의 학

회 행사에 일본포장학회 임원 11명이 내한하고, 門屋 卓, 大澤 善次郎, 大須 賀弘 3인이 각각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

다음 날 세미나 주최측 인사와 日本包裝學會 일행이 KIDP를 방문하여 KIDP의 柳豪玫 원장을 비롯한 李大成, 朴重根 본부장 등 임원진과 의견교환하면서 양국의 포장업계 협조 문제를 협의하고, 특히 한국포장학회의 설립에 KIDP 유호민 원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기대한다는 언급이 있었다.

또한 세미나 참석에 대한 답례로 그해 6월 16일 신동소는 일본 포장학회 주최 학술대회에서 “韓國의 包裝廢棄物處理에 關한 法令”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런 일련의 행사 과정에서 상호 우의를 돈독히 하였으며 특히 이런 학술 행사가 보도됨으로써 日本包裝學會의 활동상황이 국내 포장인들에게 긍정적인 평가가 되고 국내 포장학회 창립에도 밑거름이 된 것으로 생각한다.

포장의 과학화와 포장기술의 선진화를 위하여 산학연이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갖추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며 포장산업이 안고 있는 환경, 폐기물 문제에 관한 장기적 정책 제시, 포장인력의 양성 또는 외형적 팽창에 따른 이론적 토대구축은 물론 포장기술과 관련학문 분야간의 정보 교환의 장을 마련하고, 선진제국의 여러 포장학회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어 선진 과학기술 정보를 국내에 소개하는 등 총체적인 포장의 과학화 선진화를 담당하는 학회가 필요하다는 공통적인 인식이 포장학회의 창립을 재촉하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

### 4. 한국포장학회 설립

우리민족이 향유한 전통포장의 原典과 포장기술의 原流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것은 소중한 포장의 유산이다. 그럼에도 포장을 ‘꾸러미’라는 말로 비하하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 전통포장과 현대적 포장기법의 접목이 절실하였다. 그것이 곧 포장학회의 설립이다. 그 기폭제가 국제간 학회 교류였다. 즉 한국펄프·종이공학회장으로 日本包裝學會 부회장 門屋 卓(도쿄대학 명예교수·제지학 전공)과 교분을 가진 차에 방한을 희망하여 한국펄프·종이공학회의 초청으로 1993년 6월에 방한하게 되어 KIDP 주최 세미나 개최를 계기로 日本包裝學會 일행이 국내 김치공장 방문을 우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식 ‘기무치’가 우리의 김치와 국제적인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수출시장에서 자웅을 다투는 시기에 日本包裝學會가 김치제조 공정의 연구를 위해 김치를 담그는 과정을 보고자 포장시스템을 연구하려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였다.

지금에 와서는 대수롭지 않은 것인지 모르지만 당시 일본 포장전문가가 그 공장을 견학하는 것 자체가 마음의 부담이 되었지만 학문에는 학자들의 요청에 응하는 것이 순

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 김치공장 견학을 허가받아 1993년 6월 5일 포천 소재 현장을 안내하게 되었다. 당시 공장 안내원은 방문자에게 호의로 그 공장 견학을 주선 하였다.

日本包裝學會 일행과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된 것은 日本包裝學會가 1992년에 설립 된 것을 알고 우리도 포장학회 만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설립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실 하였다. 국내에 연관된 학회와 비교하여 일본과 미국의 학회보다 당시 30~50년 늦는데 포장학회를 설립하면 결국 그 만큼 빨리 성장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에 대한 접근 방법은 국내 포장학회를 설립하여 인재 양성에 목표를 두고 우선 日本包裝學會 설립연도와 거리를 좁히고, 포장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라도 포장학회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여 그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관련업계의 포장인들이 학회설립에 공감대를 형성하였지만 막상 그 준비과정이 녹록치 않았으므로 항상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데는 산고가 있기 마련이었다. 이런 역경이 역사적 산물을 낳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 난관을 타개하는 과정에서 金淸 대표가 포장학회창립 태동기에서 밝힌바와 같이 학회설립의 굳은 신념에서 출발하여 산과역할을 다하였으며,李大成 한국포장협회 전무이사가 멘토로서 포장관련인의 여론을 순조롭게 무마시켰으며 구수(鳩首)회의를 거듭하여 우여곡절 끝에 한국포장학회의 탄생이 1994년 7월 7일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2층에서 개최되었다. 포장학회 탄생의 주역은 많은 분이 참여하였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분은李明堦(한국포장시스템연구소장),金淸(일간포장산업 대표),李大成(한국포장협회 전무이사),金德雄(한양여자전문대학교수),朴炯雨(한국식품개발 연구원),李鍾賢(미원중앙연구소),李根澤(강릉대학교 교수) 이외 많은 사람의 공이 컸다.

## 5. 포장학과의 설립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한국포장학회가 학회 본연의 학술과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포장학과의 개설이 필요하였다. 특히 포장분야는 그 범위가 넓고 다양하여 융합과 통섭의 학문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포장산업과 포장문화의 향상을 도모하며 특히 물류 과정을 일관하는 분야의 인재양성에 달려있다. 그 당시 미국에는 30여개 4년제 대학에 30여개 포장학과가 당시 개설되어 있었다. 중국도 포장학과를 개설하여 인재양성에 국력을 쏟고 있었다.

4년제 포장학과 설립을 위해 당시李明堦 총무이사와 함께 국내 대학에 포장학과의 전망과 그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고 동참한 당시 포장협회 林東俊 회장과 房大燁 회장에게 감사를 드린다.

본 학회가 1994년 창립된 이후 4년제 대학 포장학과 설립에 심혈을 기울여 온 경위에 대한 방문 일정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1996. 5. 16: 경민전문대학 방문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慶政專門大學 洪禹俊 학장과 洪文鍾 이사장으로부터 포장학과 설립에 따른 자문을 본 학회에 요청하여 辛東韶 學會長과 李明堦 총무이사와 함께 李康孫 교무처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포장학과 졸업생 취업 전망을 설명하였다.

### 나. 1996. 7. 30: 강릉대학교 방문

강릉대학교 식품공학과 李根澤 교수로부터 포장학과 설립에 관해서 姜奎錫 총장이 설명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에 辛東韶 회장, 林東俊 한국포장협회장, 李明堦 총무이사와 함께 방문하여, 취업전망을 역설하고 협회 차원에서 장학금과 기자재 설치자금, 취업보장 등을 설명하였다. 이에 姜 총장은 1997년도에 포장학과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언질이 있어 1997년 4월에 본 학회차원의 지원으로 포장학과 설립에 대한 제반 자료를 전달하고 5월에 통상산업부가 포장학과 설립 촉구 공문을 대학당국에 발송하였다.

동년 8월 26일 동 대학이 제어계측과와 유통포장학과 설립인가 여부를 교육부에 간접적인 확인 요청이 있었으므로 본 학회장과 당시 金在能 학술이사와 교육부 대학행정지원과를 방문하여 담당과장께 학회 차원에서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설명, 협조를 건의하였다.

강릉대학측은 교육부로부터 정원 100명 증원시 유통포장학과 설립을 허용 하겠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강릉대학교가 요청한 정원배정을 받고도 대학당국은 유통포장학만을 유보시켰다.

### 다. 1998. 8. 10: 경기대학교 방문

경기대학교 李潤鎬 교무처장과 辛 회장, 李明堦 총무이사, 李鍾賢 섭외이사가 1998. 4월에 회동하여 동 대학에 4년제 포장학과 설립방안의 자료를 전달하였으며, 1999년도 학과 설립을 목표로 하여 1998년 7월에 동 대학이 교육부에 신설계획서를 제출. 이후 경기대학교 林鍾洙 기획실장으로부터 포장학과 설립과 관련된 본 학회의 자문을 구하는 정식 요청이 있었으므로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辛東韶 회장, 한국포장협회 房大燁 회장, 李明堦 총무이사, 李鍾賢 섭외이사가 방문하고 대학측에서는 孫鍾國 총장, 이윤호 교무처장, 임중수 기획실장과 함께 배석하여 포장학과 인재 양성의 필요성, 학과 설립 후 졸업생 취업 보장, 실험기자재 지원방안에 대해 진지한 토의와 협의가 있었다. 이에 본 학회와 관련 포장업계는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하였다. 동 대학은 교육부에 포장학과를 설립코자 허가요청서를 제1순위로 제출하였던 바 1999년도에 수도권 신설학과 불허방침으로 좌절되었다. 이런 제약조건을 헤소코자 꾸준히 노력하여 1999

년 4월에 동 대학이 2000년도 재추진을 계획한다는 기획실장의 언급이 있었다.

#### 라. 1998. 8. 22: 동국대학교의 협조 요청

동국대학교 교무처장과 趙炳默 교수를 통해 1998년 8월 12일에 동 대학 산업기술대학원내에 포장공학 석사과정을 설립하려는 계획을 접하여 8월 19일 본 학회에서 마련한 포장학과 설립방안, 미시간 주립대학 포장학과 대학원 교과목을 이명훈 총무이사가 전달하였다. 그 후 8월 22일 동 대학 교무처장으로부터 신설이 확정되면 본 학회에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 요청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 마. 1999. 4. 28: 건국대학교 방문

건국대학교 孟元在 총장이 1988년도 취임하여 포장, 유통분야를 강화할 것이라는 기사를 접하여 1998년 12월 2일에 포장학과 설립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 전달한 후 孟 총장으로부터 기획실장께 구체적인 검토를 지시하였다는 연락을 받았다. 1999년 4월 12일 학회 차원의 면담 요청이 있어 1999년 4월 28일에 양 기관의 관계인이 회합을 가졌다. 당일 대학측은 孟 총장, 宋熹永 부총장, 李相穆 교무처장, 姜秉根 기획실장이 배석하고 학회측은 辛 회장, 李明堦 총무이사, 朴炯雨 재무이사가 참석하였다. 이에 대학 발전 마스터플랜에 의거하여 본 학회는 포장학과 설립의 요지로써 첫째로 국내외적 포장산업의 비중, 포장인력의 부족, 그리고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경쟁의 핵심은 유통이며 포장은 유통의 중핵임을 설명하였다. 둘째로 학회와 협회 측에서 가능한 지원으로써 교과목 편성, 시험기자재 지원, 장학금 지원, 졸업생 취업 보장, 기타 산업자원부가 교육부에 포장학과 개설을 촉구하는 지원공문을 본 학회에 요청하였으므로 이 공한을 교육부에 이첩하였다.

#### 바. 1999. 11. 16: 경상대학교 방문

포장학과는 산업자원부의 신기술 산업 육성 강화 시책에 의거, 서부 경남 지역에 있어서 포장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한 취지로 진주시 소재 경상대학교에 포장학과 설립의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학회에서는 辛 회장, 李明堦 총무이사가 방문하여 대학 측에서는 朴忠生 총장, 李相正 교무처장, 朴鍾烈 교수 세 사람이 배석하고 포장학과 설립의 필요성, 설립 이후 세부 협조사항, 국내 포장산업의 현황, 국내의 주요 대학의 포장학과 현황, 향후 전망 등을 설명하였다. 동 대학측은 이에 기존 학과 간 연계전공으로 연구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

#### 사. 2000. 3. 15: 교육부 방문

포장학과 설립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李明堦 총무이사, 李鍾賢 섭외이사, 산업자원부 崔月英 사무관 3인이 교육부

대학행정지원과를 방문하여, 具滋文 사무관을 만나 포장산업의 신산업 및 미래 산업화 지정을 요청하고 동 학과의 설립 지원을 설득하였다. 이에 대학의 정원조정 등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5월 강릉대학교가 포장학과 설립 요청서를 교육부에 재차 제출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 아. 2000. 12. 22: 연세대학교 방문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가 대학 발전의 전략적 차원에서 포장학과 설립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 동시에 총장과의 면담을 주선하였다. 이에 본 학회 辛 회장, 金淸부회장, 李明堦 총무이사가 방문하여 金雨植 총장에게 포장교육, 졸업생의 진로, 국가 산업발전의 기여도를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전달하였다.

연세대학교는 포장학과 설립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후 원주캠퍼스에 관련 교무위원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검토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본 학회에서도 교과목 구성 및 강사진에 대한 조언을 하였다. 2001년 4월 30일 드디어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가 2002학년도 수시 모집 공고 즉, 디자인계열의 산업디자인학 및 산업포장학의 두 전공 분야를 공고하였다. 한편, 본 학회는 우수 학생의 유치 지원책으로 패키징학 발전장학기금의 창구 개설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2001년 11월 5일 원주캠퍼스 鄭仁和 교무처장의 요청에 호응하여 정시 모집 시 지원자에게 산업포장학의 홍보로써 포장학 및 포장기술의 중요성, 취업, 진로, 전망에 대한 자문을 하였다.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과 같이 온갖 노력 끝에 2002년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에 4년제 대학 패키징학과가 설치되어 만 6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되었다.

#### 자. 기존 전문대학 포장학과설립

전문대학에 포장학과가 설립 된 것은 무엇보다 학사운영에 막강한 권한을 가진 이사장의 소신과 포장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였다. 그 예로써 국내 포장교육의 불모지 상태에서 경북과학대학이 1993년 처음으로 포장학과를 설치하였으나 최근 대학의 구조조정으로 타 학과에서 포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995년 신성전문대학이 그 뒤를 이어 산업포장과가 개설되었으나 근간에 역시 관련 과에서 포장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1년 용인송담대학은 기존 제지공업과를 제지·패키징 시스템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수도권 유일의 포장교육기관이 되었으며, 최근에 유통학부로 확대 변경하여 유통·프렌차이즈, 물류 및 매장 디스플레이 등을 융합시킨 차별화 되고 다양화된 커리큘럼으로 포장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 아. 기타

참고로 본인이 초대회장부터 5대 임기 중 포장학과 설치

상황은 위와 같다. 최근 이명훈 박사가 알려준 관련 자료를 소개하면 성균관대학교, 충남대학교 등에 포장학과 개설을 추진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직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근래, 전북 익산지역에 설립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식품패키징센터가 세워질 계획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포장 전문 인력 양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 6. 맺는 말

포장학회설립의 과정이 먼 훗날 포장사에 자료와 고증이 되며 포장문화와 포장학회가 갖는 의미를 사유(思惟)했다.

포장학회 설립의 불씨는 포장인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그 불씨를 당기는 기회가 포장의 큰 획을 긋는 시작이 되었다.

포장학회가 첨단산업에 속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던 것은 당시 수도권 학생 정원동결과 대학 내 교수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여론을 오도하여 설립을

저지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제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포장학과 설립은 포장산업발전에 절체 절명한 것이며 정부가 그 설립을 권장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 감사의 말씀

본 원고작성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준 이명훈 박사와 신준섭 교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참고문헌

1. 金靑, 포장학회 창립의 태동기에 부쳐, 한국포장학회지, 제1권, 제1호, pp. 63-64, 1995.
2. 신동소, 4년제 대학 포장학과 신설 추진 보고, 한국포장학회지, 제7권, 제2호, pp. 52-54, 2001.